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1월 ~ 12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식품, GMO, 유전자, 농업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식품, GMO, 농업, 유전자 등

##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2010. 1. 31  
중국 정부, 유전자변형  
신품종 육성 추진

2013. 11. 4  
헤이룽장성  
Non-GMO콩 재매

2016. 4. 6  
헤이룽장성에서  
GMO 대두 불법 재매

2016. 12.16.  
헤이룽장성  
인민대표회의, GMO  
작물 금지 규정 통과

핵심이슈  
도출

**“중국 헤이룽장, GMO작물 금지 규정 통과”**



Bigdata Analysis

#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 중국 헤이룽장, GMO 작물 금지 규정 통과

지난 16일 GMO 작물의 금지 규정이 중국 곡창지대 헤이룽장성에서 통과되었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회의는 ‘헤이룽장성 식품안전 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2017년 5월 1일부터 GMO작물의 재배를 금지한다. 해당되는 작물에는 옥수수, 벼 그리고 콩이 있으며 작물과 종자의 생산, 가공, 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용코너를 마련해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GMO식품임을 밝힐 경우 판매가 허용되나, 사실상 판매 금지 조치로 분석된다.

헤이룽장성 인민대표회의는 이와 같은 조치는 친환경 농업을 발전시키고, 헤이룽장성을 녹색식품 산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흑룡강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농부의 91.5%가 GMO 작물 생산에 반대한다. 헤이룽장성은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전달해 비준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옥수수, 벼, 콩을 제외한 나머지 작물에 대한 규제는 발표되지 않았다.

반면 중국 정부는 유전자 변형 목화과 파파야의 재배를 승인한 상태이다. 올해 1월에는 유전자변형 기술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강화한다는 ‘1호 문건’을 발표하여 GMO 작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낸 적 있다. 기존에 연구는 지지했지만 보급은 망설이던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듯 헤이룽장성의 지방 법규가 중앙 정부와 상충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한국은 GMO 표시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가공식품의 경우 GMO 원료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헤이룽장성이 중국 정보와 별도로 GMO 작물 생산과 가공을 전면 금지 시켰으므로 해당 지역에 옥수수나 콩 등을 가공한 가공품(빵, 과자, 음료, 시리얼, 식용유, 된장, 간장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료 산지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GMO종자의 유입이나 유통 또한 엄격히 금지되므로 시장 진입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